

Customs Focus

이주의
초점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3길 33 (성수동 2가 6층)

contents



01
이주의 초점



02
관세 무역 NEWS



03
개정 법령



04
민원 사례



05
기타

contents



이주의 초점

1.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2.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플라스틱까지 적용 확대 우려

3. 3월 무역수지 한 달 만에 적자 전환

관세·무역 NEWS

4. 해외 K-브랜드 짝퉁 유통 근절 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

5. 中 주요 도시 봉쇄에도 물류 피해 적을 전망

6.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추진

7.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유통 실태조사



개정법령

8.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9.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민원사례

10. RCEP C/O상 HS Code 기재 관련 질의

11. 카드 할인 인정 여부 관련 질의



기타 관세소식

12. "평택·당진항에 2030년까지 5조9천억 투자"

13. 영국,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한시적 무관세 추진

Cover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 I

이주의
초점

올 1분기 무역적자 중 42억 달러는 원재료 수입물가 급등 때문
수입관세 인하 및 원자재 비축 대상 증대 등 장·단기 공급망 관리 정책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줄줄이 봉쇄령을 내렸던 2020년 4월, 원유 수요 또한 급격히 줄자 국제유가가 폭락했다.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5달러(WTI 기준)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1993년 3월 이후 21년여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관세·무역
NEWS

2022년 4월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WTI 기준) 근방에서 머무르고 있다.

개정
법령

2년 전인 2020년 4월과 비교하면 6배 이상 가격이 오른 수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때 배럴당 130달러대까지 치솟은 국제 유가는 현재(4월 5일 기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지만, 이 수치 또한 연초 가격(76.08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30%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유가가 계속해서 100달러 언저리를 맴돌고 있는 가운데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 기업들에 부정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 II

이주의
초점

기업 10곳 중 7개, 국제유가 150달러 돌파 시 적자 전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액 1,000대 제조기업 151개社를 대상으로 조사한 '국제유가 급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결과에 따르면, 기업 10곳 중 7곳은 유가가 150달러 돌파 시 적자로 전환된다고 응답했다.

적자 전환 유가는 평균 142달러로, 현재 수준인 100달러에서 적자로 전환된다는 기업도 13.2%나 됐으며, 150달러가 되면 적자로 전환된다는 기업이 28.5%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특히 유가가 200달러 이상될 경우 모든 기업들이 공장 가동 중단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장 가동 중단을 고려할 수 있는 유가는 평균 184달러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유가 상승의 대응을 위해 ▲에너지 외 원가절감(32.8%), ▲제품 가격 인상(24.3%), ▲전기 등 대체 에너지 사용 확대(11.2%), ▲신규 투자 등 생산성 향상(10.7%) 등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어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원유 관세 인하(37.1%), 해외자원개발 지원 등 안정적 에너지 수급처 확보(25.6%), ▲정부의 원유 비축물량 방출(14.1%),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및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 인하 연장(13.3%)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 III

주요 수입원재료 관세율 인하, 해외자원개발 확대 등 공급안정대책 필요

이주의
초점

이와 관련해 올해 1분기 중 무역수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최근 원유, 천연가스 등 원재료 수입물가의 급등에 따른 것으로 주요 수입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세·무역
NEWS

한국경제연구원이 4월 1일 발표한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올 1~2월 원재료 수입물가는 58.5%(원유 두바이유선 기준, 천연가스 JKM 기준) 급등했다. 코로나19가 완화되며, 수요가 점차 늘던 원유 및 천연가스(LNG)의 수입물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더욱 급등하며 원재료 수입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1~2월 중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물가 상승률은 각각 68.1%, 69.2%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

원화 기준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률이 무역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 원재료 수입물가가 1%p 상승하면 무역수지는 분기 기준으로 7,200만 달러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이에 한경연은 최근 급등한 원재료 수입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무역수지 적자는 계속될 수 밖에 없다며, 주요 수입원재료의 공급 원활화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원자재 공급난이 심화되는 양상"이라며, "주요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하고, 침체된 해외자원개발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 IV

이주의
초점

무역협회, "올 하반기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무역수지도 개선될 것"

올해 들어 급등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 하반기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불안심리 완화, 재고 증대에 힘입어 하락 안정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관세·무역
NEW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5일 발간한 '주요 원자재 공급망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에 따르면, 세계 원자재 공급에서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産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품목에서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주요 원자재의 공급 구조를 살펴본 결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품목은 크립톤(80%), 네온(70%), 팔라듐(42.9%), 소맥(26.6%) 등 4개였다. 천연가스(16.8%), 옥수수(13.8%), 원유(13%), 니켈(11.3%), 알루미늄(5.6%), 석탄(5.3%), 구리(3.9%) 등 7개 품목은 모두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의 원재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원
사례

실제로 원유, 석탄, 알루미늄 등 원자재 가격은 3월 초 고점대비 10% 이상 하락하며 빠르게 안정됐으며, 특히 석탄의 경우 3월 2일 440달러/톤에서 4월 1일 258.8달러/톤으로 40% 이상 하락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유가 150달러 돌파 시 기업 70% 이상 '적자' - V

이주의
초점

이어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의 원인이 공급 부족이 아닌 전쟁 불안 심리가 더 크게 작용한 결과라며 가격 급등 후 최근 약 보험세를 보이는 원자재 가격은 올 하반기 불안심리 완화 및 재고증대에 힘입어 하락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기업과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핵심 원자재 비축 확대, ▲원자재 재수출 및 매점매석 제한, ▲수입관세 인하를 제시했으며, 장기적으로는 ▲원자재 비축 대상 증대, ▲해외자원개발, ▲원자재 가공·처리기술 확보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플라스틱까지 적용 확대 우려 - I

무역협회,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 ... 최종안 반영 시 업계 가중 전망

이주의
초점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이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아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관세·무역
NEWS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4월 4일 발표한 'EU 의회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수정안 평가와 시사점'에 따르면, EU 의회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수정안이 초안과 비교해 달라진 내용은 ▲CBAM 적용 품목 확대, ▲CBAM 적용 및 무상배출권 폐지 조기 시행, ▲탄소 배출범위에 간접배출 포함 등으로 분석됐다.

개정
법령

최초 초안에서 CBAM 적용품목은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등 5개였으나 의회 수정안은 여기에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서, 암모니아 등 4개 품목을 추가했다.

민원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품목에 대해 2019~ 2021년간 우리나라의 EU로 수출한 연평균 수출액을 분석한 결과 수정안에 추가된 4개 품목의 3년 연평균 수출액은 55억 1,000만 달러로 같은 기간 EU 수출의 9.9%를 차지했다.

초안에 포함된 5개 품목의 같은 기간 연평균 수출액 30억 달러, EU 총수출 대비 비중은 5.4%임을 고려할 때 의회 수정안 통과 시 국내 관련 업계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EU 탄소국경조정제도, 화학·플라스틱까지 적용 확대 우려 - II

이주의
초점

이와 함께 수정안은 CBAM이 적용되는 탄소 배출의 범위도 '상품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직접배출만 포함하는 것에서 '상품 생산에 사용된 전기의 발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수정안은 애초 EU 집행위원회가 CBAM 도입시기로 제시한 2026년을 2025년으로 1년 앞당겼고, EU 내 탄소누출 위험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에 무상으로 할당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을 폐지하는 시기도 2036년에서 2028년으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세·무역
NEWS

무역협회 신규섭 연구원은 "최종 법안이 수정안을 얼마나 반영할지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로서 초안에 비해 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 및 기관의 세밀한 영향평가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 EU 집행위원회 입법안과 의회 수정안 비교 •

구분	집행위원회 입법안	의회 수정안
적용품목	철강, 전력, 비료, 알루미늄, 시멘트	집행위 입법안 + 유기화학품, 플라스틱, 수소, 암모니아
도입시기	시범 적용 : 2023.1.~2025. 12. 본 제도 : 2026.1.	시범 적용 : 2023.1.~2024.12. 본 제도 : 2025.1.
무상할당권	2026년 이후 10년간 10%씩 감축	2025년 이후 4년간 10%, 20%, 30%, 40%씩 감축
배출범위	직접배출만 포함.	간접배출까지 포함.
역외국 탄소가격제 인정	별도 조건 없음.	명시적 탄소가격제만 인정
거버넌스	27개 회원국 각각에 집행기구 설치	중앙화된 집행기구 설치

출처 - CUSTRA

Cover 3월 무역수지 한 달 만에 적자 전환 - I

주요 품목 수출 증가에도 원유·원자재 등 수입폭 더 커

이주의
초점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관세·무역
NEWS

우크라이나 사태, 원자재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과 같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속에서도 무역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6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 634억 8,000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월 수출실적을 달성했으나 최근 급등한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으로 636억 2,000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해 수출대비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개정
법령

산업통상자원부가 4월 1일 발표한 2022년 3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161억 2,000달러), 석유화학(54억 2000달러)를 기록했고 中·美·ASEAN 등 3대 시장 수출 모두 월 최고실적을 경신했으며, 중동·중남미 등 新시장에서도 두 자릿수의 증가세를 유지해 주요 품목·지역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수출은 17개월 연속 플러스, 13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하는 견고한 성장 모멘텀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사례

반면 에너지 가격 급등, 중간재 수입 증가로 역대 최고 수입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3월 수입액은 2021년 12월 기록했던 기존 최고 수입실적(611억 6,000달러)을 30억 달러 가량 웃돌며 역대 최고 수입 기록을 경신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3월 무역수지 한 달 만에 적자 전환 - II

이주의
초점

이는 8년여만에 배럴당 110달러 선을 기록한 원유를 비롯한 3대 에너지(원유, 가스, 석탄) 가격이 모두 전년 대비 대폭 증가했으며, 수출실적 호조로 생산에 필요한 납사 등 원자재와 철강제품·메모리반도체 등 중간재 수입도 함께 증가해 3월 수입액 급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집계됐다.

관세·무역
NEWS

일본, 프랑스, 미국 등 주요국들도 수출보다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동절기 들어 대규모 무역수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문승욱 산업부장관은 “글로벌 리스크가 심화되는 흐름과 전년에 비해 적은 조업일수에도 불구하고 3월 달 수출은 630억 달러를 넘어서며 3개월 만에 역대 월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며,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원유·가스 등 에너지원과 반도체 희귀가스를 포함한 공급망 핵심품목도 면밀히 동향을 점검하면서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해외 K-브랜드 짝퉁 유통 근절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 - I

이주의
초점

외국세관 공무원 대상 지식재산권 역량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 세계적인 한류열풍으로 우리 기업 상품이 해외에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반면 위조 유통이 급증해 경제적 손실은 물론 기업 이미지까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관세청과 특허청이 함께 해결사로 나섰다.

관세·무역
NEWS

관세청 인재개발원과 특허청 국제시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권 보호 및 관세행정 역량 교육을 위해 3월 30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정
법령

이번 업무협약은 동남아, 남미 등 우리 기업 상품의 위조품들이 대량으로 생산·유통되고 있으며, 위조품의 국가 간 이동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조 상품의 국가 간 이동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및 관세행정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민원
사례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각 외국인 세관공무원 대상 교육과정에 지식재산권과 관세행정 관련 과목을 편성하고, 강사를 상호 파견하는 등의 교육협력을 추진할 예정으로 공동 교육과정 및 교재 개발 등 교육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 공유와 연계 등의 활동에도 협력함으로써 양 기관 관련 행정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제 지식재산권 보호 행정의 저변을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해외 K-브랜드 짝퉁 유통 근절위해 관세청·특허청 손잡아! - II

이주의
초점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력을 통한 교육 강화로 개도국 세관 공무원의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이 강화돼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해외 통관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받는 등 지식재산 보호의 실효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과 특허청은 지난 2013년에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 단속, 정보 공유 등 범부처적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관세·무역
NEWS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되는 등 세계 각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가 보편화돼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으로부터 우리 기업과 국민생활 보호에 더욱 노력할 것이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제 관세행정 현대화 선도에 크게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법령

김태응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 업무협력은 한류기업 진출국가 세관공무원의 지식재산 보호역량 강화가 주 목적으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과 관세청은 해외 진출한 우리 기업 보호와 국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中 주요 도시 봉쇄에도 물류 피해 적을 전망 - I

전 세계적 금융환경 악화로 물동량 ↓ · 선복량 ↑ · 운임은 ↓

이주의
초점

최근 중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가 급증하자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환으로 상하이, 선전 등 주요 대도시 봉쇄 및 통제를 강화했다.

관세·무역
NEWS

이번 봉쇄조치로 컨테이너선 공급만 정체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되나 해상운임은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컨테이너선 시장 수급 변동으로 인해 약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4월 1일자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컨테이너선 시장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개정
법령

중국의 오미크론 감염자는 지난 2주 평균 확진자 수 1,902명으로 올 1월 평균 121명 대비 약 15배로 가파르게 증가하자 선전, 상하이 순으로 주요 도시를 봉쇄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 물류대란 우려를 가중시켰다.

민원
사례

하지만 전년 중국 옌티엔, 메이산 폐쇄의 경우 도시기능 유지에 따른 수출화물 공급이 지속된 반면 항만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항만폐쇄로 글로벌 대형 항만의 운영 중단으로 물류 병목현상이 악화되며 운임이 추가 상승했다.

반면 이번 선전 및 상하이의 경우 도시 전체를 봉쇄해 제품 생산 및 내륙물류 차질 발생해 화물의 생산과 항만으로의 이동이 제한돼 선박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기타
관세소식

Cover

中 주요 도시 봉쇄에도 물류 피해 적을 전망 - II

이주의
초점

또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압력, 금리 인상,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 악화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컨테이너선 시장은 연 초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보고서는 중국 내륙운송 능력 저하 및 창고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물류 효율 저하로 체선 및 임시 결항이 증가하고, 상하이시의 오미크론 감염 확산이 통제되지 않을 경우 봉쇄조치가 연장돼 현지 인프라의 완전 정상화까지는 추가 시일 소요가 예상돼 공급망 정체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무역
NEWS

여기에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금융환경 악화로 북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수요 축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선사들의 러시아 기항 중단 및 선박 전배에 따른 선박공급 증가해 우리나라 등 중국 인근 국가로의 선박 할당이 증가해 화물 적체현상 완화 등 컨테이너선 시장 수급 변동 발생으로 운임하락이 유발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정
법령

다만 상하이항의 대기 선박 증가는 시차를 두고 선박공급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돼나 해상운임의 흐름은 이번 중국 봉쇄보다는 대외여건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 및 선박의 실질 공급량 등에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추진 - I

ESG 수출장벽에 110여 수출기업 영향권에 들 것으로 분석

이주의
초점

지난 2월 EU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공급망 실사 지침 최종안 발표로 우리 수출기업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유럽 내에서 4,000만 유로 이상 매출을 기록한 회사에 대해 ESG 요인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미흡할 경우 개선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법제화가 될 경우 ESG 수출장벽에 110여 수출기업이 영향권에 있는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이미 환경, 인권 등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법제화했으며, EU 공급망 실사 지침안이 이사회, 의회에서 승인될 경우 EU 회원국은 1~2년 내 관련 법률을 제·개정해 공급망 실사를 의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31일 경제단체, 수출 관련 공공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EU 등 주요 국가와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확산 중인 ESG 공급망 실사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ESG 지원 시범사업' 착수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실사 대응의 시급성이 높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방향과 공급망 실사 영향,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EU, ESG 공급망 실사 법제화 추진 - II

이주의
초점

시범사업으로는 EU, 미국 등 주요국 및 공급망 실사를 도입한 글로벌기업의 중소·중견 협력사를 대상으로 모의평가(사전 경험축적)과 공급망 컨설팅을 제공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모의평가 문항을 정립하고 업종별 세부 대응 방안 마련을 병행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생산성본부는 실사 발효 시 자동차 부품사,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산업 등이 우선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고 이에 속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사전 대응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또한,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이용 對EU 수출 중소·중견기업 중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고위험 섹터 해당 예상 수출기업은 110여개社로 이들 기업이 잠재적으로 지침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무역협회는 노동·환경 관련 생산 비용 상승 등으로 수출기업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ESG 실사 준수가 가능한 국가의 기업을 중심으로 EU 공급망이 재편될 경우 사전대응에 들어간 우리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전망했다.

개정
법령

산업부 최남호 산업정책관은 “ESG 공급망 실사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이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의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업종별 대응 가이드스’를 마련하고 시범사업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사례

출처 - CUSTRA

기타
관세소식

Cover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유통 실태조사 - I

8개 오픈마켓 대부분 우수 수준 이상으로 나타나

이주의
초점

관세청이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부정수입물품 유통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이 우수 수준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오픈마켓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및 소비자 보호제도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와 함께 부정수입물품 유통내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위조상품 등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 통신판매중개자(오픈마켓)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부정수입물품 유통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정보 관리(6개 항목), ▲인력·기술·검증(6개 항목), ▲소비자 보호(7개 항목), ▲법규준수도(1개 항목), ▲기관 협력도(2개 항목) 등 5개 분야(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업체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를 기초로 각 항목별 기준에 부합되는 정도를 5등급으로 서면 실태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Cover

관세청, 통신판매중개자 대상 부정수입물품·유통 실태조사 - II

이주의
초점

다만, 최근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 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으로 주요 적발 유형으로 ▲판매목적 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 소비용으로 가장해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한 부정수입, ▲중국産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한국産으로 허위표시해 판매한 원산지 위반,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상품을 수입해 판매한 지재권침해 유형이 대표적 적발유형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오픈마켓이 소비자 제공정보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일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무역
NEWS

개정
법령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의 부담 경감 및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제도와 법인 아닌 단체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일괄신고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이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 결손금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의 신청서식을 마련하고, 법인 아닌 단체의 대표신고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출서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인지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서식과 관련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명칭을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총리령 제1802호, 2022. 3. 3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작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작업시설을 위생용품제조업자가 갖추어야 할 작업시설과 구분하여 탈진실, 세탁실, 포장실 등으로 정하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가 식품, 의약품·의약외품, 화장품 제조업 등을 같이 운영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의 창고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위생용품의 수입신고 과정에서 해외제조업소 정보 등 안전성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경우에 대한 처분기준은 완화하고, 행정처분의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Cover

RCEP C/O상 HS Code 기재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RCEP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세번부호 6단위를 기재하는데 올해 HS 개정으로 바뀌거나 없어진 세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HS를 변경 전 세번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연계된 세번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세·무역
NEWS

□ (답변)

∴ 일반적으로 수출입신고는 HS 2022 6단위 기준으로,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 HS 적용 버전으로 해야 합니다.

개정
법령

RCEP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는 2012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카드 할인 인정 여부 관련 질의

이주의
초점

□ (질의)

∴ 쇼핑몰에서 특정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30달러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할인을 이용해 160달러 물품을 130달러에 구매했는데 이 경우 자가사용 면제가 가능한가요?

□ (답변)

∴ 온라인 쇼핑몰과 신용카드사의 제휴 이벤트 할인은 구매자와 관계없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의 마케팅 정책에 의한 것으로 해당 할인 금액은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간 지급·영수되는 카드 수수료와 마케팅 비용 등이 서로 상계돼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세·무역
NEWS

즉 해당 할인이 판매자가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예 : 신용카드사의 청구 할인)이 명백하게 확인되거나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한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밝혀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할인 후의 가격으로 영수증을 발행했다면 해당 상업서류(영수증)의 금액을 인정해 영수증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 - CUSTRA

Cover "평택·당진항에 2030년까지 5조9천억 투자"

이주의
초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내 최대 자동차 전용부두인 평택·당진항의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안 차관은 12일 오후 평택·당진항 현장을 방문해 항만 주요 현황과 자동차 수출 현장 등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평택·당진항의 주요 현황점검과 자동차 수출업계 현장 의견을 들었다.

평택·당진항은 물류처리능력 기준 전국 5위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대중국 수출입 화물처리를 위한 중추 항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내 최대 자동차 전용부두 시설을 통해 9년 연속 완성 자동차 물동량 1위를 기록했다.

관세·무역
NEWS

이 자리에서 안 차관은 평택·당진항 부두시설 확충, 배후단지 개발, 여객시설 등 인프라 확충에 2030년까지 총 5조9000억원을 투자해 평택·당진항을 수도권 산업지원항만 및 서해권 해양관광 거점 항만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64선석에 잡화 6선석과 LNG 1선석의 산업·물류 부두를 추가해 총 하역 능력을 1억400만5000t으로 높이고, 배후교통시설로 평택·당진항 진입도로 등을 조기 건설해 수출입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레저 기능강화를 위해 국제여객부두를 3만t급 4선석으로 늘리고 국제여객터미널도 이전·신축에 2000억원을 투자해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중여객선 수요에 대응하고 여객터미널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개정
법령

아울러 총 320만㎡ 규모인 경기평택글로벌 및 경기평택항만공사 배후단지 개발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자동차 클러스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 제조업체 및 국제여객선사·관광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예정이다. 안 차관은 현장 방문에서 건의된 스마트항만 구축에 약 1조여원을 투자하고, 안전한 항만 운영을 위해 근로자 재해 예방시설 집중지원, 항만 근로자 복지를 위한 복지관 확충지원 등 정부의 투자 현황과 향후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다.

민원
사례

기타
관세소식

출처-뉴시스

Cover

영국,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한시적 무관세 추진

이주의
초점

영국이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을 위해 우크라이나 상품의 한시적 관세 면제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향후 모든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의 한시적 면제 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영국 수출 금융기관을 통한 35억 파운드, 자선 지원금 4억 파운드, 세계은행 보증 약 4억 파운드 등 금전적 지원과 추가 무기 지원을 약속했다. 세부 사항은 향후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모든 상품에 대한 관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 상품에 대한 추가 통관 간소화 조치도 검토 중이다.

관세·무역
NEWS개정
법령민원
사례기타
관세소식

출처-한국무역신문

Customs Focus

JOYANG
CUSTOMS
SERVICE CORP.



※ 자료 출처 : 관세무역정보,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등

